



사순시기
기도, 단식, 회생으로
예수님 수난에 동참



나누는 공동체, 더불어 사는 공동체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한인천주교회

ST. FRANCIS OF ASSISI CHURCH KOREAN COMMUNITY

Address: 135 West 31st Street, New York, NY 10001

Phone : 212.736.8500 (EXT 355, 384)
347.834.5784 (사무실 휴무 월, 목)

Website : www.stfranciscok.org

청년 website : facebook.com/groups/yagfyfny

Email : stfranciscok.org@gmail.com

주임신부 : Fr. Thomas Gallagher, O.F.M.

지도신부 : Fr. 김진열 가롤로(작은형제회 (프란치스코회)) carolokimofm@gmail.com

지도수녀 : 박순호 티모테아(투스 평 포교베네딕도회 서울수녀원) seoulsb@gmail.com

사목회장 : 이서원 마리로사 201.787.0879

한국학교 : stfranciscok@gmail.com

[제1독서] 창세 9,8-15

[화답송] 시편 25(24), 4-5ㄱ-ㄴ. 6과 7ㄴㄷ. 8-9 (◎10 참조)



(후렴) 주님, 당신 계약을 지키는 이들에게
당신의 모든 길은 자애와 진실이 옵니다.

- 주님, 당신의 길을 알려 주시고, 당신의 행로를 가르쳐 주소서. 저를 가르치시어 당신 진리로 이끄소서. 당신은 제 구원의 하느님이시옵니다. ◎
- 주님, 예로부터 베풀어 오신, 당신의 자비와 자애 기억하소서. 주님, 당신의 자애에 따라, 당신의 어지심으로 저를 기억하소서. ◎

[제2독서] 1 베드 3,18-22

[복음환호송] 마태 4, 4

- ◎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찬미받으소서.
-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느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

[복음] 마르 1,12-15

[성가안내]

- 입당성가 [117] 지극한 근심에
- 봉헌성가 [216] 십자가에 제헌되신
- 성체성가 [152] 오 지극한 신비여
- 파견성가 [124] 은혜로운 회개의 때

[신앙고백] -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

+ 한 분이신 하느님을 ◎ 저는 믿나이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늘과 땅과 유형무형한 만물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또한 한 분이신 주 예수그리스도, 하느님의 외아들,
영원으로부터 성부에게서 나신 분을 믿나이다.
하느님에게서 나신 하느님, 빛에서 나신 빛,
참 하느님에게서 나신 참 하느님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나시어
성부와 한 본체로서,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믿나이다.
성자께서는 저희 인간을 위하여, 저희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셨음을 믿나이다.

또한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에게서 육신을 취하시어 사람이 되셨음을 믿나이다.

<밀줄 부분에서 모두 고개를 깊이 숙인다.>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저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수난하고 묻히셨으며
성서 말씀대로 사흘날에 부활하시어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아계심을 믿나이다.
그분께서는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영광 속에 다시
오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으리이다.
또한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이다.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에게서 발하시고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영광과 흠숭을 받으시며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나이다.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며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를 믿나이다.
죄를 씻는 유일한 세례를 믿으며
죽은 이들의 부활과 내세의 삶을 기다리나이다. 아멘.

미 사 봉 헌

| 연미사 | 봉헌 |
|--|----------------------------|
| 전마사자 카타리나 김화자 소화테레사, 정인해 예로니모 고창숙 엘리사벳 | 연령회 김영숙 카타리나 이원경 모니카 |
| 생미사 | 봉헌 |
| 고종호 마태오, 고윤제, 이원경 모니카 하순자 마리아 조민현 신부 | 이원경 모니카 윤 루시아 보나 브레너 |

| 주일 | 해설 | 1독서 | 2독서 | 보편지향기도 | 성한봉사 |
|--------|--------------|-------------|------------|-------------|-------------|
| 2월 21일 | 이영노 울리안나 | 민완준 필립보 | 민재인 테레사 | 민완준 필립보 | 이지훈 아네스 |
| 2월 28일 | 장혜윤 크리스티나 | 이경자 울리안나 | 고은경 모니카 | 이경자 울리안나 | 김영숙 카타리나 |

[미사 안내]

1. **참석인원**은 선착순 **80명** 이내이며 일정은 별도의 안내가 있을 때까지 아래와 같습니다.

- 주일 미사 :
토요일 4:00 pm

일요일 8:00 am, **9:15 am (한인공동체)**,
11:00 am, 5:00 pm

- 평일 미사 :
월 ~ 금 7:30 am, 12:00 noon, 5:00 pm
토 11:00 am

2. 실시간 온라인 중계 :
<https://stfrancis.org>

[미사참석 시 지킬 수칙]

- 마스크는 미사 시간 내내 착용합니다.
- 미사 중 손을 잡지 않으며, 악수 등 신체 접촉을 피합니다. (평화의 인사등)
- 봉헌 : 봉투 사용은 자제하여 주십시오.
- 영성체 : 영성체 전에 손 세정을 합니다.

[사순시기 - 공동 보속]

사순시기가 시작되는 재의 수요일부터 사순시기 동안 우리 공동체에서는 투병중에 계신 모든분들과 코로나 팬데믹으로 고통중에 계신 분들을 위하여 **매일 오후 3시**에 각자 계신 장소에서

주모경 1번 바치며 그분들과 함께 예수님 수난에 동참하는 거룩한 사순시기를 지내려합니다.

- 십자가의 길 기도는 **공동으로 하지 않습니다. 개인으로 바칩니다.**
- 사순시기 동안에 받는 고백성사는 판공성사로 인정됩니다.
- 고백성사 : 1) **매주일 미사전 오전 8시 30분부터 8시 50분**
2) **평일에도 신부님과 미리 연락하시면 가능함.**

[줌(zoom) 활용한 온라인 사순특강]

(홈페이지 참조 : www.fec.or.kr)

- 일 시 : 2/23 - 3/23, 매주 화요일 밤 8:30 - 9:30 (뉴욕 시간)
- 유튜브로 중계되는 유료강의입니다. 신청자에 한해서 접속링크가 제공됩니다.
- 강의 시간에 맞추어 링크를 클릭(누르면)하면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 강의 일자, 주제와 강사(프란치스코 작은 형제회 소속)
- 2/14일 신청하신 분이 24명입니다.

| 일자 | 주 제 | 강 사 |
|------|--|--------------|
| 2/24 | 찬미와 권고의 삶 | 오상선 바오로 신부 |
| 3/3 |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고 있는가? (루카 1, 54. 72) | 정장표 레오 수사 |
| 3/10 | 팬데믹 시대의 그리스도인 | 기경호 프란치스코 신부 |
| 3/17 | 기도가 세상을 구할 것입니다. | 박희전 루케치오 신부 |
| 3/24 | 팬데믹 시대의 형제애적 등불, 프란치스코 교황 회칙"모든형제들" | 김일득 모세 신부 |

- **꾸리아 줌(Zoom) 미팅** 공지입니다.

일시 : 2021. 2. 21. (주일) 오후 1시

Meeting ID : 81277119634 Passcode : 7336

[한인공동체 온라인 서비스 안내]

1. 미국 본당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합니다. 구글에서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한인성당"**을 검색하세요.

stfrancisnyc.org > [korean-ministry](#) > [Translate this page](#)
[Korean Ministry - Saint Francis of Assisi](#)

클릭하면 한인공동체로 바로 연결됩니다.



- 성 베네딕도의 규칙서 49장 -

사순절을 지키에 대하여

수도승의 생활은 언제나 사순절을 지키는 것과 같아야 하겠지만,
 이러한 덕을 가진 사람이 적기 때문에,
 이 사순절 동안에
 모든 이들은 자신의 생활을 온전히 순결하게 보존하며,
 다른 때에 소홀히 한 것을 이 거룩한 시기에 씻어내기를 권하는 바이다.
 이것은 우리가 모든 악습들을 멀리하고,
 눈물과 함께 바치는 기도와, 독서와,
 마음으로부터 우러나는 통회와 절제에 힘쓸 때,
 합당하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평소의 섬김의 분량에 어떤 것을
 이 시기에 더 늘일 것이니,
 곧 특별한 기도와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한 절제이다.
 그리하여 각자는 성령의 즐거움을 가지고
 자기에게 정해진 분량 이상의 어떤 것을
 하느님께 자발적으로 바칠 것이다.

즉, 자기 육체에 음식과 음료와 잠과 말과 농담을 줄이고
 영적 갈망의 즐거움으로
 거룩한 부활 축일을 기다릴 것이다.

그러나 각자는 자신이 바치고자 하는 것을
 자기 아빠스에게 알려서
 그의 기도와 동의를 얻어 실행할 것이니,
 영적 아버지의 허락 없이 하는 일은 주제넘은 짓이고
 헛된 영광이라고 여겨지며
 아무런 공도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모든 것은 아빠스의 동의를 얻고 행해져야 한다.

[2021년 2월 교황님의 기도지향]

복음화 지향 : 폭력 피해 여성

폭력의 피해를 입은 여성들이 사회의 보호를 받고 자신들의 고통에 대하여 관심과 배려를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기도해주세요]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게 해 준 것이다.” (마태 25,45)

♡ 투병중에 계신 분에

- 김순한(루시아) 김옥지(아가다)
- 전마지(마가렛) 이재오(클레멘트)
- 김동희(헬레나) 이종환(T.아퀴나스)
- 이정주(소화테레사) 김용기(요셉)
- 정창동(폴리나) 고종호(마태오)
- 지군자(스테파니) 홍봉운(바오로)
- 이경봉(요셉그레고리오)
- 정영도 노의선

2월7일자 주보 교무금 상황 정정입니다.
아래 것으로 대체해 주세요.
(2/7일자는 폐기 해 주십시오.)

| 정 성 | |
|------|---|
| 교무금 | Cash : \$930 양미숙, 윤한구, 윤효숙 안선정, 김지영, 이경자 유정옥, 보나 브레너 |
| | Check : \$600 임노엘 |
| 감사헌금 | \$100 이종환 |
| 합 계 | \$1,630 |

| | |
|------------|--|
| 주일미사 | 오전 09:15 윗 성당 |
| 청년미사 | (당분간 중단) 매월 둘째 토요일 오후 6:00 |
| 고해성사 | 주일 오전 8:30 ~ 8:50 지하 성당 고백실 |
| 혼인성사 | 당분간 중단 |
| 유아세례 | 당분간 중단 |
| 예비자 및 견진교리 | 기간 : 9월 시작 - 다음해 4월 주일 10:50am - 12:00pm, 클레어 룸 |

[사순 제 1 주일 말씀 길라잡이]

창세 9,8-15/1베드 3,18-22/마르1,12-15

오늘 복음을 보면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내보내십니다. 광야는 풀조차 제대로 자라지 못하는 척박한 땅입니다. 자신의 몸 하나 추스르기도 힘든 땅입니다. 그렇지만 광야는 박해받거나 쫓기는 이들에게 피신처가 됩니다. 하느님을 만나려는 사람에게는 기도하는 장소가 도기도 합니다. 그래서 초기 교회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하느님을 만나러 사막을 찾아 들어갔습니다. 이곳에서 하느님을 찾으려 온갖 고행과 어려움을 참아 견디는 삶을 살았습니다.

광야는 세상의 시끄러움에서 벗어난 곳입니다. 세상의 안락함과 즐거움을 포기하고 하느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풀한포기, 물 한 모금 찾기 어려운 그곳에서는 하느님께 매달릴 수 밖에 없습니다. 어느 곳에서건 홀로 자신을 성찰한다면 그곳이 광야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서는 광야에서 수련하시던 중 사탄에게 유혹을 받으십니다. 아마도 사탄은 배고픔과 외로움에 시달리신 예수님에게 하느님의 일을 하려면 먼저 자신이 당면한 문제부터 해결하라고 유혹했을 것입니다. (마태 4,1-3 참조) 우리는 능력이나 시간등 여유가 있어야 하느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뜻은 나의 배고픔부터 해결하라는 유혹에서 벗어나 이웃을 향하는 것입니다. 이번 사순 시기 동안 광야를 체험하며 하느님의 영으로 충만하도록 힘써야겠습니다.

인생이 광야임을 깨달을 때 우리는 덜 중요한 것을 포기 할 수 있다. 덧없는 것에서 손을 놓을수 있다....마음이 고통이 극에 달할때야 비로소 생의 우선 순위를 깨닫게 된다. 이런 의미에서 광야는 우리 영혼에게 귀한 것이요, 해방을 위한 '초대'이다. 야곱이 후손들이 하느님을 우선순위로 택하고 그분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광야로 초대됐듯이 우리도 허망한 것들은 다 떼어버리고 가장 중요한 것을 선택하라고 광야에 초대 되었다.

- 송봉모 '광야에 선 인간' -



Nest Seekers
INTERNATIONAL

부동산
크리샤 박
krishap@nestseekers.com
(917)370-0394



뉴욕 맨하탄 NYC INTEGRATIVE ACUPUNCTURE
마음힐리언스 한방병원



마리아투어
Maria Tour USA
성지순례
박 아그네스
646-808-7322

이민전문 (아오스딩)
백이백 변호사
201-224-3400
718-445-0345
Paicklaw@gmail.com

ATTORNEY AT LAW
STEVEN LOUROS
EXPERT IN PERSONAL INJURIES
212-481-5275 (New York)
718-423-0448 (Flushing)
1261 BROADWAY SUITE 1100 NEW YORK
SLOUROSESQ@YAHOO.COM

그리운 miss **KOREA**
10 W 32ND STREET 1,2,3 FL, NY
201-888-6765



23 W 32ND STREET, NEW YORK
212-695-5815

120 W 58th St. Manhattan, NY 10019
120 5 WEST WINE & LIQUOR
212-265-0333 (FREE DELIVERY,
MON-SAT:11AM-11PM/ SUN: 12PM-9PM)

더큰집
32 W 32ND STREET NEW YORK
TEL. 212-564-8238

[단체모임 안내] : 추후 공지 때까지 중단합니다.

| | | |
|---------------|----------------------|--------------|
| 요셉회 | 2nd 주일 11:00am | Conf. Rm(2F) |
| 성모회 | 2nd 주일 11:00am | 교육관 4 |
| 연령회 | 2nd 주일 11:00am | Lower Church |
| 꾸리아 | 3rd 주일 11:00am | Lower Church |
| 울드레아 | 1st 주일 11:00am | 교육관 4 |
| 양업회 | 3rd 주일 11:00am | Conf. Rm(2F) |
| 성령기도회 | 매주 화 06:00pm-07:30pm | Conf. Rm(2F) |
| 학부모회 | 1st 주일 11:00am | 교육관 3 |
| 예수성가정회(FYMNY) | 4th 주일 11:00am | Francis Room |